

요약문

I. 서론

□ 연구목적

-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을 위해 향후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의 보완조치 차원에서 수탁기관으로서의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-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는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이익기반 구축, 주인인 근로자(DC형) 및 사용자(DB형)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 됨.
- 본 연구는 종전과는 차별화된 리스크관리관점에서 퇴직연금 리스크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보고, 이를 통한 보험회사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음.

□ 연구내용

- 퇴직연금제도에서의 리스크유형, 특징 등을 살펴보고 선진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를 통해서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모색하였음.
-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험회사의 퇴직연금리스크 대응실태를 살펴보고, 보험회사간의 리스크관리 수준차이 등을 분석하였음.
- 퇴직연금 리스크관리방안을 상품설정리스크, 언더라이팅리스크, 수탁자재설정리스크, 소송리스크, 연금운용리스크 등 5가지 유형의 리스크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음.

II. 퇴직연금 리스크에 관한 이론적 고찰

□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체계와 구조

-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,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, 회사형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 등으로 분류
 - 현행 퇴직연금의 운용체계는 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체계이며 지배구조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임.
-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지배구조 특성에 부응한 리스크개념 및 리스크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함.

□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정의 및 분류

-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라 하면 근로자 및 사용자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의미함.
 - 아직까지 정형화된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정의 및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인데,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사용자, 근로자, 수탁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.
-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는 위탁자 측면에서의 리스크와 은행 및 보험회사 측면, 즉 수탁자 측면에서의 리스크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□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특징

- 위탁자 측면에서의 리스크
 - 재원부족리스크 : 각출부족리스크, 자산운용리스크, 부채변동리스크, 자산·부채의 미스매칭리스크 등으로 구분
 - 지급불능리스크 : 유동성리스크, 경영리스크 등으로 구분
- 수탁자(보험회사) 측면에서의 리스크
 - 상품설정리스크, 언더라이팅리스크, 수탁자재설정리스크, 소송(법률)리스크, 연금운용리스크 등으로 구분

Ⅲ. 선진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실태

□ 운용상품설정리스크

- 준거이율에 적합한 GIC형 상품개발
 - 확정금리형 상품개발시 사전에 충분한 시장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금리의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함.
- 금리시나리오모델 개발 등 금리 예측능력 향상
 - 시장금리의 변동성에 기초한 연금상품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장금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금운용시 금리예측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.
- GIC형 대체상품개발의 강화
 - 확정금리형 대체상품으로 옵션형 변액보험 및 합성 GIC상품의 개발에 최근에는 보다 초점을 맞추어 운용상품설정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
 - 저금리로 인한 예정이율리스크가 증대함에 따라 옵션형 변액보험 판매로 전환하여 예정이율리스크의 감소를 도모
- 운용상품의 전략적 제휴
 - 선진보험회사의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운용상품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은행 등 타금융기관과 운용상품에 대한 전략적제휴를 실시

□ 언더라이팅리스크

- 보험회사에 특화된 부가서비스부문 진출
 - 住友생명은 중소기업중심 수속대행에 초점을 맞춘 부가서비스창출에 진출함으로써 신이익원개발에 의한 언더라이팅리스크의 버퍼기능을 강화(일본생명: 종업원에 대한 일괄적 정보체제구축)
- 예상수탁수수료를 고려한 수익예측분석
 - 종업원 규모별(가입자규모별)에 따른 인프라비용산출(초기비용, 유

지관리비용)이 이루어지고 있음.

- 예상 수탁수수료체계를 고려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출여부를 신중히 고려함.
- 통합서비스체제 구축과 인프라비용 절감
 - 제도발족시 서비스로부터 기록관리·운용지도관리·운용상품제공 등의 서비스, 즉 종합서비스체제(Bundled Service)를 제공함(미국).
 - 일본생명 등과 같은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괄서비스제공과 100인 이하의 적격연금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전략화를 추진함으로써 인프라고정비용의 절감을 도모함.

□ 수탁자 재설정리스크

- 정량적 평가측면
 - 연금자산운용의 기본방침 설정, 연금리스크 관리기법의 도입 및 개발(미국 Wilshire Associate 및 Hewit Associates사, 住友생명과 慶應대학과 공동개발)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 - 금리변동 및 임금상승과 같은 경제적 변수 등을 감안하여 장단기적인 연금재정을 추계함(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능력의 배양 등).
 - 연금재정의 안정성 및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금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음.
- 정성적 평가측면
 -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기 위해 4P 즉 포트폴리오 구축, 운용프로세스, 인재, 투자철학 등에 입각하여 체크포인트를 설정·점검함.

□ 소송(법률)리스크

- 독자적인 컴플라이언스체제의 확립
 - 선진보험사는 법률(소송)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

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가진단 차원에서 사전적 대응책을 강구함.

- 특히 보험회사는 투자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개별 투자결정시에는 인수한 투자의 목표, 투자대상과 포트폴리오 전체에 비추어 그 투자가 적절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음.
-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 충실
 -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행함으로써, 그리고 공시를 충분히 행함으로써 고객 또는 잠재고객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충실성, 신중성을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함.
- 서류의 관리·문서의 명확화
 - 수탁기관이 위탁자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선택, 계약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동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과 위탁자에의 공시·설명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.

□ 연금운용(장수)리스크

- 연금상품의 증대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익변화를 보다 탄력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의 손익예측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음.
- 스코어링시스템 등 연금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로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함.

IV. 국내 보험회사의 퇴직연금리스크 관리실태 분석

□ 설문조사대상 및 설문조사내용

○ 설문조사대상

- 설문조사대상으로 보험회사로는 생명보험사 12개사(외국 생명보험사 일부포함), 손해보험사 10개사 등 총 22개 보험회사를 선정함.

설문조사 대상 및 기간

		설문조사 대상		특징
조사대상	보험회사	생명보험	12개사 (외국생보사포함)	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담당자
	(22개사)	손해보험	10개사 (외국손보사비포함)	
조사기간	2004. 2. 16~2. 28			-

○ 설문조사내용

- 퇴직연금시장 진출계획관련 항목, 퇴직연금리스크 인식관련 항목, 퇴직연금리스크 대응관련 항목 등으로 세분화하였음.

설문문항의 항목별 분류

구분	세분류	문항수	비중(%)
퇴직연금시장진출계획 관련항목	진출여부 및 선호도 등	3	18.6
	확정급여형 연금시장	1	
	확정기여형 연금시장	4	
퇴직연금 리스크인식관련 항목		4	9.3
퇴직연금리스크대응관 련 항목	운용상품설정 리스크	6	72.1
	언더라이팅 리스크	8	
	수탁자재설정 리스크	7(12)	
	소송(법률) 리스크	5	
	연금운용 리스크	5	
전체		43(12)	100.0

□ 설문조사 분석결과

- 퇴직연금시장 진출계획 설문결과
 - 전체의 90.9%에 해당하는 20개사가 진출계획이 존재하고 있으며, 보험회사의 특성상 80%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함.
 - DB형 퇴직연금시장 진출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회사는 전체 보험회사의 50.0%로 인 것으로 나타남.
 - DC형 퇴직연금시장 진출계획은 85.0%인 17개사가 가지고 있으며, 이 시장에 대한 준비는 70.6%인 12개사만이 이루어지고 있음.
 - DC형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출부문으로는 전체의 88.2%인 15개사가 모든 부문에 진출할 계획에 있으며, 자산관리업무부문만 진출할 계획이 있는 회사는 2개사임.

- 퇴직연금 리스크인식 설문결과
 - 보험회사의 70.0%인 14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가 퇴직보험의 운용리스크보다 크다고 응답함.
 - DB형 및 DC형 중 DC형이 보다 리스크부담이 크다고 65.0%인 13개사가 응답함.
 -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보험회사가 중소형보험회사보다 운용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□ 통계분석결과

- 운용상품설정리스크
 - Kruskal-Wallis 분석결과, 변수 I -1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유의수준 5%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(이에 반해 변수 I -2부터 변수 I -6까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).
 - 결국 운용상품설정리스크의 경우 생명보험사/손해보험사간에는 대체로 뚜렷한 차이가 없지만, 대형보험회사/중소형보험회사간에는

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이는 대형보험회사의 운용상품설정리스크관리 대응수준이 중소형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함.
- 언더라이팅리스크
 - 전체적으로 볼 때 운용상품설정리스크의 통계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생명보험사/손해보험사간에는 언더라이팅 리스크관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음.
 - 중소형사는 언더라이팅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하기 위해 타 금융권에 비해 강점이 있는 특화된 부가서비스 진출계획 수립, 퇴직연금의 예상수탁수수료를 감안하여 수익예측분석 등이 요구됨.
- 수탁자재설정리스크
 - 전체적 차원에서의 검증결과, 생명보험사/손해보험사간에는 리스크관리수준차이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, 대형보험회사/중소형보험회사간에는 리스크관리 수준차이가 존재함으로써 특히 중소형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제고가 요구됨.
- 소송(법률)리스크
 - 전체적으로 생명보험사/손해보험사간, 대형보험회사/중소형보험회사간 모두 10%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 수준차이가 존재
- 연금운용리스크
 - 전체적으로 생명보험사/손해보험사간, 그리고 대형보험회사/중소형보험회사간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5%하에서 통계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□ 분석상의 의미

- 퇴직연금 리스크인식 분석결과, 70% 이상의 보험회사가 퇴직연금

이 퇴직보험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65.0%인 13개 보험회사가 확정기여형이 확정급여형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인식함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단지 45%만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(따라서 현시점에서 볼 때 보험업계의 리스크인식을 높지만 리스크의 대응은 매우 미흡함).
- 보험회사는 운용설정리스크, 수탁자재설정리스크, 연금운용리스크, 언더라이팅리스크 순으로 리스크의 중요성을 인식함.
 - 운용상품설정리스크를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본 반면, 소송(법률) 리스크에 대해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로 보아, 소송(법률) 리스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부족함.
- 퇴직연금 리스크대응 분석결과
 - 운용상품설정리스크 : 전체변수의 평균값이 3.22로 나타나 대체로 적극적인 리스크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이 2.27로 여타그룹보다 리스크 대응이 미흡
 - 언더라이팅리스크 : 전반적으로 중소형보험회사보다는 대형보험회사가, 손해보험회사보다는 생명보험사가 언더라이팅리스크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함.
 - 수탁자재설정리스크 : 상대적으로 정성적 평가에의 대응이 정량적 평가에의 대응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보험회사와 중소형 보험회사간의 차이가 뚜렷히 나타남.
 - 소송리스크 : 여타 리스크의 평균값보다 가장 적은 2.25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어 향후 철저한 소송리스크의 대응책이 요구됨
 - 연금운용리스크 : 전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이 여타그룹보다 연금운용리스크수준이 낮으며 대형 생명보험사그룹의 경우 평균값을 훨씬 초과하는 연금운용리스크수준을 시

현하고 있음

- 통계분석에 의해 리스크대응분석결과
 - 운용상품설정리스크 : 생명보험사/손해보험사 간에는 뚜렷한 통계적 차이가 없지만, 대형보험회사/중소형보험회사 간에는 유의수준 5% 하에서 차이가 존재함.
 - 언더라이팅리스크 : 전체적으로 볼 때 대형보험회사/중소형보험회사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함.
 - 수탁자재설정리스크 : 생명보험사/손해보험사 간에는 리스크관리 수준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, 대형보험회사/중소형보험회사 간에는 리스크관리 수준차이가 존재함으로써 특히 중소형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제고가 요구됨.
 - 소송리스크 : 전체적으로 생명보험사/손해보험사 간, 대형보험회사/중소형보험회사 간 모두 10%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 수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 - 연금운용리스크 : 생명보험사/손해보험사 간, 그리고 대형보험회사/중소형보험회사 간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5% 하에서 통계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.

V.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방안

□ 기본방향

- 단지 45%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만이 퇴직연금 리스크에 대해 대비하고 있을 뿐, 대부분 보험회사는 퇴직연금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요구됨.
-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관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.

- 향후 중소형보험회사 및 손해보험사의 리스크관리수준이 보다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형화된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이 요구됨.
-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모두 기본적으로 운용상품설정리스크, 언더라이팅리스크, 연금운용리스크에 중점을 두는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함.
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심으로 진출하는 보험회사는 수탁자재설정리스크관리에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심으로 진출하는 보험회사는 소송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존재함.

□ 세부추진방향

<운용상품설정리스크>

- **운용리스크 등을 감안한 상품포트폴리오 운용**
 - GIC상품 등과 같은 보험상품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, 장기적으로는 원금보장형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리스크 및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등을 고려하여 상품포트폴리오의 재구축이 매우 중요함.
- **안정가치펀드형 대체상품개발 등**
 - GIC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합성 GIC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정가치펀드(stable value funds)를 개발·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보험상품개발은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 및 변화(신탁제도의 발전상황 등), 그리고 종업원의 위험성향,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.
- **시장금리 예측능력의 제고와 연금기초율 설정**
 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시장금리 인하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, 시장금리 변동을 감안한 예정이율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.

- 보험회사는 ① 미래의 시장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, ② 자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추이 등을 고려하여 예정이율 적정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함.
- **종업원 특성을 고려한 연금상품의 다양성 제고**
 - 종업원 속성에 따라 연금상품 선택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, 라이프사이클별로 근로자의 속성을 세분화하여 이 속성에 부응한 연금상품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<언더라이팅리스크>

- **특화된 서비스의 창출**
 -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발 등은 언더라이팅비용의 효율화로 이어져 가격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.
 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① 연금제도 설계중심의 서비스 개발 ② 연금부채 중심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관련 서비스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질 필요성이 존재함.
 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① 자산관리업무 중심보다 사무관리업무 중심의 서비스개발 ② 연금운용의 성과 측정에 관련된 서비스개발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.
- **안정적인 손익구조체계의 구축**
 - **적정 가입자로 안정적인 이익기반화** :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경영성과가 양호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탁업무를 취급하여 가는 것이 언더라이팅 리스크관리차원에서 바람직함.
 - **비용 및 수익 예측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** : 진출할 분야의 비용

을 예측하고 이 비용구조를 고려하여 시현될 장래의 수익을 예측함으로써 진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.

- **고인플라비용분야에 대한 진출계획강구** : 대형보험회사는 대형보험회사 대로, 중소형 보험회사는 중소형 보험회사 대로 고인프라 비용(고정비용)에 대한 리스크 분산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.
- **목표시장 선정으로 초기진출비용 최소화** : 시장을 세분화하여 각 세분시장의 특성을 분석한 후 보험회사의 역량에 적합한 시장을 집중공략할 수 있도록 목표시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**언더라이팅 리스크관리 시스템화**
 - 보험회사가 진출하는 기업별로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성이 존재하며,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<수탁자 재설정리스크>

- **연금운용방침의 체계화**
 - **연금운용방침의 중요성 인식** : 연금운용의 기본은 명확한 운용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정도를 정하여 확고한 운용방침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.
 - **프로세스별 연금운용방침의 설정** : 계획(Plan), 실행(Do), 검증(Review)이라는 3단계에 의하여 연금운용방침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.
 - **연금자산운용의 의사결정 체계화** : 목표설정(objective setting)단계, 자산배분전략(asset allocation decision)단계, 운용스타일조합(style diversification)단계 순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.
- **연금전문인력의 확충**
 - 확정급여형(DB형)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연금계리사 중심의 전문인력확충으로 ALM적 자산운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존재함.

- 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투자펀드매니저 중심의 전문인력 확충으로 AM적 자산운용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.
- 연금ALM시스템의 구축
 - B/S형 ALM체계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형 연금 ALM체계 즉 시물레이션 연금 ALM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, 연금ALM체계구축에 의한 효율적인 자산배분(Asset Allocation)과 재정계획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 - 다만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는 대형보험회사와는 달리 연금ALM시스템 구축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계 공동으로 시스템을 도입·개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.
- 자산운용사 설립 및 전략적 제휴 등
 - 대형보험회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설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자산운용사 자회사방식(제1안)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중소형보험회사의 경우는 비용부담측면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의 설립보다는 오히려 자산전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방식(제2안)을 통하여 자산관리업무에 진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함.
- 정성적 성과평가에의 적극대처
 - 보험회사는 운용성과 중심보다는 운용체제의 질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연금사업에 적합한 운용철학의 정립, 우수인재의 양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.

<소송리스크>

- 투자교육의 철저
 - 제1안으로는 투자교육 전문컨설팅회사에 재위탁하거나 투자교육 전문기관의 자문 및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

- 제2안으로는 투자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투자교육의 인프라 구축, 투자교육 전문부서의 확충, 투자교육 전산시스템의 도입·개발 등 자체 투자교육을 확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

○ **컴플라이언스체제의 확립**

- 향후 보험회사의 컴플라이언스체제는 단기에 제1단계(체크단계), 장기에는 제2단계 및 제3단계(체크·검증단계)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.
- 제1단계에서는 법률상의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등에 한정하여 수탁자 책임준수규정을 체계화하여 소송리스크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법률 준수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제2단계에서는 수탁자 책임범위도 수탁기관의 대리인문제까지 포괄하는 별도의 보험회사 수탁자 책임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.
- 제3단계에서는 상시 컴플라이언스체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소송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매우 중요함.

○ **정보제공의 철저**

- 보험회사와 사용자, 종업원, 정부간의 정보제공(또는 정보공시)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송(법률)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.

<연금운용리스크>

○ **연금상품개발의 적정성 검증체계 수립(1단계)**

- 연금상품의 증대에 따른 시나리오별 예정이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연후에 리스크버퍼 수준을 감안하여 예정기초율 등과 같은 연금상품의 기초율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퇴직연금 기초율을 감안하여 연금지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시나

리오별 연금기초율 검증체계(연금상품개발의 적정성 검증체계) 수립이 연금운용의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중요함.

- 연금손익 예측 및 역선택 방지시스템 구축(제2단계)
 - 실제 연금상품의 손익을 예측하기 위해 별도의 연금손익 예측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연금운용의 증대에 따른 보험회사 손익구조변화를 예측하여 상품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봄.
 - 이와 더불어 연금가입자의 위험도에 부합한 적정한 연금보험료의 책정과 연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 Scoring System에 의한 역선택 방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종업원별 연금상품 개발 및 선진기관과의 제휴(제3단계)
 - 종업원별 속성을 감안한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연금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거나, 선진 연금전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연금운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또한 특화된 선진 보험회사(연금설계 컨설팅업체)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.

□ 향후과제

- 퇴직연금 담당임직원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층의 퇴직연금 리스크에 대한 인식제고가 요구됨.
 - 퇴직연금시장과 진출의지 더불어 보험회사의 퇴직연금리스크 중요성도 재인식하는 자세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.
- 개별 보험회사가 진출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이며, 특화된 부문은 존재하는지, 충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퇴직연금리스크의 관리여부 및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.

- 예를 들어 자금력이 풍부하여 리스크의 버퍼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용상품설정리스크의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임.
-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퇴직연금리스크 전체를 인식·추정·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퇴직연금 리스크관리부서의 설치와 더불어 체계적인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.
- 기존의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방식과는 차별화된 리스크관리 방식을 적용한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함.